

제 4 교시

한국사/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번호 2

1. 다음 글에서 A의 삶에 나타난 인간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는 에이즈 치료제 보급을 위해 노력했지만 기대 이하의 결과가 나타났을 때 절망감에 포기하려 하였다. 그러나 ‘옳은 일이고 인류를 위해 해야 할 일이라면, 실패하더라도 시작하는 것이 시작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큰 결과를 남긴다.’라는 생각을 하고 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후 그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많은 에이즈 환자에게 치료제가 보급되었고 세계인들이 아프리카의 에이즈 상황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 ① 윤리적 성찰과 실천을 통해 인간의 삶을 개선한다.
- ② 천부적인 재능을 계발하여 경제적 성공을 지향한다.
- ③ 인간관계를 중시하여 원만한 사회적 삶을 영위한다.
- ④ 유희적 활동을 통해 세속적 삶의 즐거움을 향유한다.
- ⑤ 현실적인 삶으로부터 벗어나 자연의 질서에 순응한다.

2.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군주의 지배 아래 두었다.
○ 계산을 통해 강렬하고 지속적이며, 확실하고 근접해 있으며, 생산적이고 순수한 쾌락을 추구하라.

- 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를 중시해야 하는가?
- ② 행복한 삶을 위해 철저히 금욕적으로 생활해야 하는가?
- ③ 행복을 위해 쾌락의 양보다는 질을 더 고려해야 하는가?
- ④ 행위의 동기를 기준으로 도덕적 행동을 판단해야 하는가?
- ⑤ 쾌락에 대한 욕구를 부정하고 이성적 삶을 살아야 하는가?

3. 다음을 주장한 사회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가 오늘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것은 푸줏간 주인이나 빵집 주인의 자비심 덕분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고려하는 이기심 때문이다. ... (중략) ... 개인은 사회의 이익을 의도할 때보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때 더 효과적으로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키게 된다.

- ① 재화의 균등한 분배를 위해 경쟁을 없애야 한다.
- ② 국가는 필요악이므로 궁극적으로 철폐되어야 한다.
- ③ 각자 능력껏 일하고 필요에 따라 재화를 분배해야 한다.
- ④ 합리적 이기심이 경제 활동의 원동력임을 인식해야 한다.
- ⑤ 사적인 이익과 공적인 이익이 조화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4. 고대 동양 사상가 갑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신하였던 탕(湯)이 결(桀) 임금을 쫓아낸 일이 있는데, 신하가 임금을 죽여도 되는 것입니까?
인(仁)을 해치면 도적이고, 의(義)를 해치면 강도입니다. 폭정을 행한 걸이라는 도적을 죽였다는 말은 들었어도 임금을 죽였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 ① 형벌(刑罰) 위주로 통치해야 한다.
- ② 인의를 저버린 임금은 바꿀 수 있다.
- ③ 임금을 나라의 근본으로 생각해야 한다.
- ④ 법치를 통해 부국강병을 추구해야 한다.
- ⑤ 예(禮)로써 백성의 악한 본성을 교화할 수 있다.

5.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 ~ ㉣ 중 옳지 않은 것은? [3점]

서술형 평가

● 문제: 동양 윤리 사상 (가), (나), (다)의 이상적 인간상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가)	성인은 무위(無爲)로써 일을 처리하고, 말로 하지 않는 가르침을 펼친다.
(나)	미혹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얻고, 중생을 바로잡아 성인이 된다.
(다)	어진[仁] 사람은 자기가 서고 싶으면 남도 세워주고, 자기가 도달하고 싶으면 남도 도달하게 해준다.

● 학생 답안

㉠ (가)는 겸손하여 공(功)을 다투지 않는 사람, ㉡ (나)는 연기의 법칙을 깨달아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 ㉢ (다)는 도덕적으로 완성된 사람을 이상적인 인간으로 보았다. (가), (나), (다)는 ㉣ 세속에서 벗어난 삶을 강조했으며, ㉠ 자기 수양을 통해 인격을 도야할 것을 주장하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6. 다음 근대 한국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람이 곧 하늘이요, 내 마음이 곧 네 마음이다. 따라서 인간을 하늘과 같이 섬겨야 한다.
- 모든 사람은 한울님을 모시고 있다. 어린아이도 여자도 머슴도 한울님을 모시고 있다. 따라서 어린아이를 때리는 것은 한울님을 때리는 것과 같으며, 여자와 머슴을 업신여기는 것은 한울님을 업신여기는 것과 같다.

- ① 근대화된 서양 문물의 수용을 강조하였다.
- ② 신분 차별이 없는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였다.
- ③ 기존 성리학의 이념과 질서를 고수하고자 하였다.
- ④ 일원상(一圓相)의 진리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다.
- ⑤ 현세적 삶의 개혁보다는 내세적 구원을 중시하였다.

7.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내 마음이 곧 부처'임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릇된 인식과 경험의 습기(習氣)를 제거하는 수행을 지속해야 온전한 부처의 경지에 이를 수 있게 된다.
- 선(禪)은 부처의 마음이요, 교(敎)는 부처의 말씀이니 깨침[悟]과 닦음[修]은 분리될 수 없다. 따라서 고요하고 자취도 없는 마음의 본체인 정(定)과 더불어 깊은 지성의 작용인 혜(慧)도 닦아야 한다.

- ① 경전 공부만으로 깨달음에 이를 것을 강조하였다.
- ② 교종의 입장에서 선종을 조화시킬 것을 강조하였다.
- ③ 선정(禪定)과 지혜(智慧)를 함께 닦을 것을 강조하였다.
- ④ 깨달은 이후에는 더 이상의 수행이 필요 없다고 보았다.
- ⑤ 점진적인 수행을 통해 불성(佛性)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8. 다음은 어느 사상가가 지은 책의 표지 그림 일부와 그에 대한 설명이다. 이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왕관을 쓰고 칼과 지팡이를 들고 있는 거인은 '리바이어던'으로, 다수의 시민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는 개인의 이기심에서 비롯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평정하는 존재를 상징한다.

- ① 자연 상태에서는 평화가 유지된다.
- ② 국가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위임된다.
- ③ 사회 속에서 인간의 이타성이 회복된다.
- ④ 시민의 저항권은 제도로 보장해야 할 기본권이다.
- ⑤ 개인들의 동의를 통해 통치자에게 절대권이 부여된다.

9. (가)의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의 그림으로 완성하고자 할 때, A ~ 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p>갑: 도덕성은 도덕법칙으로부터 유발되는 의무의 관념이 동시에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다. 도덕적 행위는 단지 의무에 맞기만 해서는 안 되고 의무로부터 비롯된 것이어야 한다.</p> <p>을: 선(善)은 사람에게 시인(是認)의 감정을, 악(惡)은 부인(否認)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이성은 도덕적 행위의 원리가 될 수 없으며 정념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p>
(나)	<div style="text-align: center;"> <p>갑, 을의 입장을 탐구한다.</p> <pre> graph TD Start[갑, 을의 입장을 탐구한다.] --> A{A} A -- 예 --> B{B} B -- 예 --> J1[갑의 입장] B -- 아니요 --> C{C} C -- 예 --> J2[을의 입장] </pre> </div> <div style="margin-top: 10px;"> <p><범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출발 조건 ◇ : 판단 내용 → : 판단 방향 ▭ : 사상가의 입장 </div>

- ① A: 이성이 도덕적 행위의 동기인가?
- ② B: 행위의 동기보다 결과를 중시하는가?
- ③ B: 동정심에서 한 행위는 도덕적 행위인가?
- ④ C: 도덕적 존재는 정언명령에 따라야 하는가?
- ⑤ C: 공감의 발휘로 도덕적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10. 다음은 고대 동양 사상가의 주장이다. ㉠에 대한 이 사상가의 관점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어떤 것을 도(道)라고 하면 그것은 참된 ㉠도 아니며, 어떤 것에 이름을 붙이면 그것은 참된 이름이라고 볼 수 없다. ... (중략) ... 최고의 선(善)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고 다투지 않으며,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머물기 때문에 도에 가깝다.

< 보 기 >

㉠. 지식을 쌓아서 얻게 되는 진리이다.
 ㉡. 우주 만물의 근원이며 변화의 법칙이다.
 ㉢.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자연의 이치이다.
 ㉣. 인과 예처럼 사람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다.

- | | | |
|--------|--------|--------|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⑤ ㉢, ㉣ | |

[윤리와 사상] 한국사/사회탐구 영역

11.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대중들은 '앎이 노예처럼 즐거움, 괴로움, 사랑에 끌려 다닌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좋음과 나쁨을 알기만 하면 어떤 것에도 굴복하지 않고 앎이 지시하는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앎이 곧 덕이고, 덕을 행함으로써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 보 기 >

ㄱ. 무지의 자각은 진리 탐구의 필수조건이다.
 ㄴ. 유용성은 가치 판단의 절대적인 기준이다.
 ㄷ. 도덕적 행위를 위해서는 참된 앎이 필요하다.
 ㄹ. 진리에 대한 보편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중세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지혜는 신을 향하는 데 필요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고, 용기란 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절제는 자신을 완전히 신에게 바치는 것이고, 정의란 오직 신에게만 헌신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실존적으로 신을 만날 수 있다.
 을: 행복은 인간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이다. 지적인 덕이나 도덕적 덕을 통해 이를 수 있는 행복은 불완전하며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종교적 덕의 실천을 통해서 완전한 행복에 다가갈 수 있다.

- ① 갑은 도덕적 덕을 통해 신과 합일할 수 있다고 본다.
 ② 갑은 이데아의 인식을 통해 신과 만날 수 있다고 본다.
 ③ 을은 이성과 신에 대한 믿음은 조화될 수 없다고 본다.
 ④ 을은 현실 속에서 완전한 행복이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⑤ 갑, 을은 절대자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13. 다음은 어느 동양 사상가가 깨달은 진리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고제(苦諦): 현실 세계는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 집제(集諦): 고통의 원인은 무명(無明)과 집착이다.
 ○ 멸제(滅諦): 이상적 경지는 고통이 사라진 열반의 경지이다.
 ○ 도제(道諦):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는 ㉠

- ① 탐욕과 어리석음이 인간의 본성임을 인식해야 한다.
 ② 고행(苦行)을 통하여 육체적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③ 좌망(坐忘)을 통하여 자연과의 합일에 도달해야 한다.
 ④ 극단적 수행에서 벗어나 팔정도(八正道)를 실천해야 한다.
 ⑤ 모든 것이 공(空)임을 깨닫고 불변의 자아를 확립해야 한다.

14. 동양 사상가 갑, 을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격물(格物)은 하나하나의 사물에 나아가 그 사물의 이치[理]를 찾는 것입니다.

격물은 마음의 바르지 못함을 없애 그 마음의 본체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 보 기 >

ㄱ. 갑은 양심을 보존하고 본성을 함양할 것을 강조하였다.
 ㄴ. 을은 양지(良知)를 실현하면 누구나 도덕적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ㄷ. 을과 달리 갑은 사물의 이치[理]가 마음속에 있다고 보았다.
 ㄹ. 갑은 '격(格)'을 '바로잡는다[正]'는 의미로, 을은 '이르다[至]'는 의미로 보았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다음을 주장한 한국 사상가의 관점에만 모두 '√'를 표시한 학생은? [3점]

이(理)와 기(氣)를 나누어 보려는 사람은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다. 이(理)는 모든 사물의 원리로서 보편적인 것이고, 기(氣)는 그 원리를 담는 그릇으로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둥근 그릇에 물을 담으면 물 모양이 둥글게 되고 모난 그릇에 물을 담으면 물 모양이 모나게 되지만, 그 속에 담긴 것이 물이라는 점에서는 같다.

	학생	갑	을	병	정	무
관점						
이는 귀(貴)하고 기는 천(賤)하다.		√			√	√
이는 통(通)하고 기는 국한[局]된다.			√		√	√
이도 발(發)하고 기도 발할 수 있다.		√		√	√	
이와 기는 현실적으로 서로 떨어져 있을 수 없다.			√	√		√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16.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인간은 선을 행하고자 하면 선을 행할 수 있고, 악을 행하고자 하면 악을 행할 수 있다. ... (중략) ... 사람을 사랑한 뒤에 인(仁)이라고 하지,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인이라고 하지 않는다. 자신을 선하게 한 뒤에 의(義)라고 하지, 자신을 선하게 하기 전에 의라고 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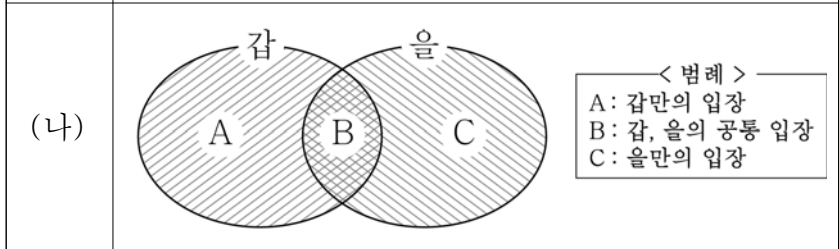
— < 보 기 > —

ㄱ. 사덕(四德)은 후천적인 노력으로 형성된다.
 ㄴ. 인간은 하늘로부터 자유의지를 부여받은 존재이다.
 ㄷ. 인간과 동물은 모두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한다.
 ㄹ. 선한 본성의 보존을 위해 모든 욕구의 제거가 필요하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7. (가)의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 C에 해당하는 진술로 옳은 것은? [3점]

(가) 갑: 정의로운 상황에서 정의로운 단계를 거쳐 발생한 것은 그 자체로 정의롭다. 최초의 취득으로 인해 타인의 입장이 악화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타인의 자발적 동의를 얻고 타인의 소유물을 합법적으로 취득한 경우의 소유의 권리는 정당하다.
 을: '무지의 베일'을 쓰고 있는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정의의 원칙에 합의하게 될 것이다. 정의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회에서 천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주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의 여건을 향상시켜주는 경우에만 그의 행운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 ① A: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해 소유권을 제한해야 한다.
 ② A: 재분배 정책을 통해 경제적 불평등을 조정해야 한다.
 ③ B: 사회마다 서로 다른 정의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④ B: 가치의 분배 과정에서 국가의 개입을 금지해야 한다.
 ⑤ C: 재화의 분배 과정에서 최소 수혜자를 배려해야 한다.

18.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주장으로 옳은 것은?

사람은 여희라는 여인을 보면 아름답다고 한다. 하지만 여희를 보면, 물고기는 물속으로 도망치고 새는 하늘로 날아가며 사슴은 재빨리 달아난다. 이 넷 중 누가 천하의 아름다움을 안다고 하겠는가? 사람들이 인의(仁義)나 시비(是非)를 주장하지만 어찌 그것을 구분할 수 있겠는가?

- ① 행위의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구별해야 한다.
 ② 인간 중심적 관점에서 만물을 판단해야 한다.
 ③ 인간의 가치 판단이 절대적임을 깨달아야 한다.
 ④ 도(道)의 관점에서 만물이 평등함을 인식해야 한다.
 ⑤ 사회 제도를 통해 인의(仁義)의 덕을 실현해야 한다.

19.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는 쾌락이 행복한 인생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 쾌락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기보다는 육체적 고통과 마음의 근심을 제거하는 것을 더 중시한다. 왜냐하면 육체적·정서적 고통을 제거함으로써 정신적인 동요나 혼란이 없는 평정심의 상태인 아타락시아(ataraxia)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① 인격신이 부여한 계율에 복종한다.
 ② 이성을 통해 모든 욕구를 제거한다.
 ③ 정신적이고 지속적인 쾌락을 추구한다.
 ④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를 최대한 실현한다.
 ⑤ 개인의 이익보다 사회 전체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20. 서양 사상가 갑, 을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참된 실존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을: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인간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 ①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에 순응한다.
 ② 이성을 바탕으로 인간의 본질을 회복한다.
 ③ 세계의 본질을 합리적인 것으로 인식한다.
 ④ 자신의 삶의 문제에 대해 주체적으로 결단한다.
 ⑤ 절망적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신에게 의지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